

화순군, '품위 있고 존엄한 죽음' 웰다잉 프로그램 운영

삶의 질 향상·웰다임 문화조성 위해 분야별 전문가 초빙 오는 15일부터 12월 1일 6차례 진행...군민 누구나 참여

화순군이 노년기 삶을 의미 있고 품위 있게 마무리하는 웰다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웰다임(Well-Dying)은 품위 있고 존엄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웰다임에 대한 관

심이 증가하고 있다. 화순군은 삶의 질 향상과 웰다임 문화조성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해 특별강좌를 운영한다. 특별강좌는 오는 15일부터 12월 1일까지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만연홀에서 여섯 차례 진행된다. 웰다임에 관심 있는 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첫 강좌는 원혜영(전 국회의원) 웰다임문화운동 공동대표가 '내가 결정하는 나의 인생'을 주제로 강의한다. 이어 박중철 가톨릭대학교 교수(나는 진정한 죽음을 원한다), 유경 어르신사랑연구모임 대표(웰다임으로 완성되는 삶, 죽음 준비 어떻게 해야 할까) 등이 강사로 나선다.

화순군보건소 관계자는 "삶에 대한 긍정적 사고를 통해 죽음이 슬픔과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인생을 정리하고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보건소 방문보건팀(061-379-5312)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박순철기자



곡성군, 정부합동평가 대비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부진 지표 대책 마련 등 실적 제고 방안 모색

곡성군이 지난 5일 이상진 부군수 주재로 2023년(2022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대비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지표 담당 부서장이 참석해 87개 평가 지표(정량 67, 정성 20)에 대한 추진 상황과 지표별 목표 달성률 제고 방안을 보고했다. 특히 정량 지표 67건에 대해서는 7월 말 기준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정확한 지표 분석과 타 부서 협조 사항 등 추진실적 제고 방안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정성 지표는 부서에서

발굴한 20개의 우수 사례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전남도 우수사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군은 앞으로 정량 지표 관리 카드를 통해 매달 추진 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연말까지 계속해서 우수 사례를 추가 발굴하고 고도화함으로써 실적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평가 결과에 따라 담당 직원들에게 포상금 지급, 유공자 표창 추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곡성=양혜영기자

나주시, 하반기 전기차 159대 보급 ... 14일부터 보조금 신청

승용 100대·화물 58대·굴착기 1대 등

나주시는 전기굴착기 1대를 포함한 하반기 친환경자동차 159대를 보급한다고 6일 밝혔다. 하반기 물량은 전기승용 100대, 화물 58대, 굴착기 1대로 오는 14일부터 구매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시는 하반기 전기차 추가 보급을 위한 예산 26억원을 확보했다. 전기승용차는 최대 1550만원, 전기화물차(소형기준) 2150만원, 전기굴착기는 2000만원까지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단 법인·기관 신청 시에는 개인에 지원되는 지방비의 50%만 지급된다. 신청자격은 차량 구매 지원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나주시 관내 주소지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 개인사업자, 법인·기관 등이다.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 실적이 없어야 한다. 장애인, 차상위 이하, 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만 18세 미만 3명) 부모, 노후경유 차량주,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등은 우선지원대상자로 전체 보급량 10%를 별도 배정한다. 전기차 구매 신청은 차량 제조·판매 대리점에서 구매계약 체결 후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보조금 지급 대상자는 차량 출고·등록(10일 이내) 순으로 선정한다.



구매자는 최초 사용 분거지를 나주시로 등록하고 2년 간 의무운행기한을 준수해야 한다. 기한 내 타 시·군 전출 또는 차량 판매 시 환수금이 발생한다. 전기차 구매 및 보조금 지원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올 상반기 전기승용 80대, 화물

70대, 수소 20대, 이륜 70대 등 총 240대를 보급했다. 최초 보급 후 현재까지 누적 물량은 2431대로 집계됐다. 나주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 등 쾌적한 대기환경과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과 전기차 충전 인프라 조성에 힘써가겠다"고 밝혔다. 나주=송준표기자

구례군, 11월 11일 제8회 농업인 한마음 행사 개최

구례군은 "2022년 제8회 농업인의 날 행사"를 오는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에 서시전체육공원(야외무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30일 개최된 구례군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에서 추진 위원장(한국농촌지도자구례연합회 김용덕회장), 부위원장(여성농민회 정영이회장), 사무국장(사)구례군입업후계자협회 김동근회장) 등 임원을 선출하고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계획을 협의하여 결정하였다. 구례=박진호기자

이번 행사는 한국농촌지도자구례연합회, 한국생활개선구례군연합회, (사)한농연구례연합회, 구례군농민회 등 14개 농업인 단체와 농업 중앙회구례군지부, 구례축산업협동조합 등 6개 농업 관련 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개최한다. 농업인 1,000명이 참여해 우수농업인 표창, 우수 농특산물 전시, 농업기술홍보관 운영, 화합 한마당 행사 등 농업기술 정보교류와 화합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례=박진호기자

장성군, 다문화가정 20가구 고향 방문 지원

'다문화가정 친정보내기' 사업 추진... 가구당 최대 300만 원

장성군이 '다문화가정 친정보내기' 사업을 추진한다. '다문화가정 친정보내기' 사업은 국내에 입국한 지 2년 이상 지난 결혼이주여성과 가족들이 친정에 다녀올 수 있도록 항공료, 체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1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온 장성군은 지금까지 99세대 292명을 지원했다. 올해는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20가구 80명에게 가구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대상 주민들은 9-12월 사이 친정에 다녀오게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결혼이주여성들의 향수를 달래고 가족 구성원 간 문화 이해도를 높일 수 있어 인기가 높다"면서 "앞으로도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내년부터 다문화가정 친정보내기 사업 대상자 선정에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등 교육 프로그램 이수 시간을 반영할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지원자의 적극적인 한국생활 정착 노력이 평가항목에 추가될 예정이다. 장성=김수권기자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광판
- 포스코SPS 포스코엔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미날 포스코A&C